



전남도민체전 개막

제48회 전라남도민체전 개막이 21일 영광 스포티움 종합운동장에서 22개 시·군 6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열전 나흘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36명으로 구성된 대회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영광=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슈퍼루키’ 정성철 KIA 마운드 활기



기에 등판해 팬들에 첫 선을 보였다. 팀이 14-0으로 크게 이기던 9회말 마무리로 등판했던 정성철의 첫 기록은 아쉽게도 '사구'였다. 첫 타자 박용근에 투스트라이크 노볼로 기선을 제압했던 정성철은 몸쪽 승부를 하다가 박용근의 뒤통수를 맞추고 말았다. 첫 타자에 사구를 허용했지만 '포커 페이스'라는 별명답게 정성철은 침착하게 다음 타자 안치용을 1루수 파울플라이로 잡아냈다. 이어 최홍수에게는 프로 데뷔 첫 삼진도 뽑아내는 등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하며 무사히 신고식을 끝냈다. 전지훈련에서 어깨 통증으로 중도하차했던 티라 이남 등판은 정성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광주일고 황금사자기 우승 주역

프로무대 포크볼 장착... 무적 불펜 기대

KIA 타이거즈의 신바람에 '루키' 정성철도 가세했다. 광주일고 출신의 투수 정성철이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떼고 입단동기 안치용과 함께 KIA에 새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자신의 20번째 생일날이었던 21일, 정성철은 1군 합류 후 처음으로 꿈에 그리던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집을 풀었다. 정성철은 제 62회 황금사자기고교야구대회에서 탄생한 '깜짝스타'. 지난해 황금사자기에서 3게임에 등판했던 정성철은 15이닝동안 22탈삼진 3피안타의 완벽 투수로 MVP를 거머쥐며 모교 광주일고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고등학교 1·2학년때 어깨 통증으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던 정성철은 자신의 첫 전국대회 출전에서 덕수고등학교의 '괴물투수' 성영훈(현 두산)을 상대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야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KIA에 입단하는 게 꿈'이라던 어린 투수가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프로 마운드에 섰다. 지난 16일 1군에 합류했던 정성철은 다음 날인 17일 LG 트윈스와의 잠실경

정성철은 "전지훈련에서 탈락해 많이 힘들었다"며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올지 몰랐던 만큼 더 기분이 좋다"고 프로데뷔 소감을 밝혔다. 프로에 와서 타자를 승부 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정성철은 입단 후 포크볼과 스플린터를 새로 장착했다. 자신의 첫 삼진도 스플린터로 잡았다. 정성철의 지구 최고 구속은 145km. 팀에 준비한 강속구 군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승부를 결정 짓는 대타함이 장점이다. 정성철은 "첫 등판에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새로운 무대에 서는 게 즐거웠다"며 "앞으로 1군 무대에서 계속 기량을 쌓고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고 밝혔다. 씩씩한 막내의 합류로 KIA 마운드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특히 3년째 막내 생활을 하던 좌완 안치용이 정성철의 등장을 가장 반기고 있다. 안치용에 이어 새로 등장한 '아기 호랑이' 정성철의 패기가 KIA의 젊은 변화를 예고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자골프 '여제 안방' 뺏는다



<최나연>

<김송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타이틀 사냥에 나선다. 23일(이하 한국시간) 밤부터 멕시코 모렐리아의 트레스 마리야스 레시덴티알골프장(파73·6천539야드)에서 열리는 코로나 챔피언십(총상금 130만 달러)이 그 무대로 오초아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2위 김송희(21)에 무려 11타나 앞서며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로 5회째인 이 대회에서 오초아는 2006년과 2008년에 우승해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대회에서 매일 60대 타수를 기록하며 25언더파를 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 연속 20언더파 이상의 성적을 냈다. 또 지난해 우승을 차지하면서 골프 명예의 전당

LPGA 코로나 챔피언십 23일 개막

위성미 등 멕시코서 오초아에 도전장

입회 자격을 갖춰 오초아로서는 더 의미가 남다른 대회인 셈이다. 오초아 뿐 아니라 세계 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한국 남자군'에게는 쉽지 않은 대회가 될 수도 있다. 랭킹 10위권 이내 선수 가운데 최나연(2위·대만), 플라 크리머(4위·미국), 수잔 페테르센(5위·노르웨이), 크리스티 커(6위·미국), 카리 웹(8위), 캐서린 월(10위·이상 호주)이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코리아 남자군'에서는 3월 마스터카드 클래식 4위, J골프 대회 6위 등 상승세를 달렸던 지난해 준우승자 김송희가 '타도 오초아'의 선봉에 서고 최나연(22), 박인비(21·이상 SK텔레콤), 김인경(21·하나금융) 등도 우승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만하다. 17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 롯데마트오픈에서 공동 36위에 그쳤던 위성미(20·나이키골프)도 출전한다. 올해 신인왕 부문에서 2위에 올라 있는 위성미는 포인트 95점으로 1위 신지애(21·미래에셋)와는 무려 255점 차이가 나고 있어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부지런히 따라가야 한다. 신지애는 일본 대회에 3주 연속 출전한다. 스튜디오 엘리스 여자오픈 공동 15

위, 19일 끝난 라이프카드 레이디스에서는 공동 7위에 오른 신지애는 24일부터 3일간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후지산케이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나선다. /연합뉴스

코닝클래식 내년부터 중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닝클래식이 2010년부터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LPGA 인터넷 홈페이지는 "1979년부터 열려온 코닝클래식이 경제적인 이유로 2010년부터 대회를 열 수 없게 됐다"고 밝히며 "최근 2~3년간 새로운 메이저 스폰서를 찾아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책 벤자민 대회 조직위원장의 말을 20일(이하 한국시간) 전했다. 코닝은 LPGA 대회를 가장 오랜 기간 후원해왔으며 올해는 5월21일부터 4일간 미국 뉴욕주 코닝에서 대회가 예정돼 있다. 2005년 감지민(29), 2006년 한희원(31·휠라코리아), 2007년 김영(29) 등 한국 선수들이 세 차례나 우승해 국내 팬들과 친숙한 대회다. /연합뉴스

<위성미>

남자골프 '한국 안방' 지킨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제주서 개막

어니 엘스 등 유럽강호들과 격돌

한국프로골프가 자존심을 걸고 유럽골프 투어의 강호들과 제주에서 격돌한다. 유럽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23일부터 나흘간 제주도 서귀포시 핑크스 골프장(파72·6천721m)에서 열려 한국과 유럽 선수들이 실력을 겨룬다. 작년에 이어 2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황태자' 어니 엘스(남아공)를 비롯해 초대 챔피언 그레이 맥도웰(북아일랜드), 헨릭 스텐손(스웨덴) 등이 제주를 찾는다. 세번째 한국을 방문하는 엘스는 볼 흐르듯 유연한 스윙으로 1994년과 1997년 US오픈, 2002년 브리티시오픈을 제패한 정상급 선수로 무릎을 다쳐 한때 슬럼프에 빠졌지만 2008년 혼다클래식 우승으로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세계랭킹 9위 스텐손은 지난 3월 WGC CA챔피언십에서 진흙탕에 빠진 볼을 치기 위해 숙곳만 입고 골프채를 휘둘러 화제가 된 선수이기도 하다. 이밖에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프레드 커피스(미국) 등도 출전해 한국팬들에게 인사한다. 이에 맞서는 한국 선수들은 35명. 1회 대회 때는 한국 선수들이 홈코스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참패를 당했다. 한국 골프의 간판 최경주(39·나이키골프)가 공동 24위에 머무는 등 한국 선수들은 단 한명도 톱10에 들어가지 못했다. 재미교포 엔서니 김(24·나이키골프)이 공동 5위에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최경주, 엔서니 김도 출전하

지 않아 국내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선수들이 유럽연합과 맞서야 한다. 한국골프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금왕 배상문(23)은 중국에서 열린 KPGA 개막전 KEB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6위에 올랐지만 다음 대회인 토마토 저축은행오픈에서 첫 탈락하는 수모를 당해 이번 대회에서는 삼금왕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작년 한국프로골프 대상을 받았던 김형성(29)은 브리티시오픈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토마토저축은행오픈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샷 감각을 끌어 올렸다. 또한 작년 아시아투어 미디어 차이나 클래식에서 우승한 노승열(18)도 두번째 우승을 꿈꾸고 있다.

젊은 선수들에게 뒤질세라 관록의 샷을 보여 주고 있는 강욱순(43·안양베네스트)은 토마토저축은행오픈 우승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선수들의 실력 못지않게 이번 대회의 최대 변수는 역시 번덕스러운 제주의 날씨다. 작년 3월에 열린 1회 대회 때는 강한 바람에 선수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4월로 개막 날짜를 잡았다. 개막 일정을 늦춘 만큼 날씨는 더 따뜻해질 수 있지만 러프가 길어 결코 쉽지 않은 코스라 될 것이라고 대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총상금 210만유로가 걸려 있지만 한국프로골프협회 정규 대회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 선수들이 상금을 타더라도 KPGA 상금 랭킹에 반영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남아공 월드컵 TV 중계 예상 수입료

32조6,800억원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TV 중계권료 수입으로 27억달러(한화 32조6천800억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AFP통신은 21일(한국시간) 니콜라 에릭슨 FIFA TV 부문 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FIFA는 유럽 전역에 남아공 월드컵을 중계하는 대가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방송사로부터 10억유로(한화 1

조7천600억원)를 받기로 계약했다. 또 아프리카 41개국에 TV 중계권을 팔기로 하고 아프리카방송연맹(AUB)과 계약 상사를 앞두고 있다. FIFA는 이와 함께 수백만 명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도 월드컵 경기를 모바일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남아공 월드컵은 전 세계 260여명이 시청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국제골프박람회 24일 개막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국제골프박람회가 24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골프 관련 50개 업체가 참여하며 부대행사로 스크린 골프대회, 스크린 장타대회, 김

진철 프로골퍼의 레슨교실, 신제품 드러이버 시타체험 등이 마련된다. 또한 헤미리골프가 준비한 스크린골프 창업설명회도 25일 오후 2시 전시장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